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 내 사랑!』

정보 윤성은 글·김근아 그림 | 52쪽 | 190*247mm | 무선 | 12,000원

주제어 생명존중, 동물권, 반려동물, 치유, 관계

교과 연계

2학년 1학기 국어 3. 마음을 나누어요
3학년 1학기 국어 10. 문학의 향기
3학년 도덕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6학년 1학기 국어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어느 앵무새의 별거벗은 날개, 거울처럼 당신을 비추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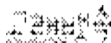
앵무새 구름이는 나쁜 말, 좋은 말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모든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 들입니다. 또 그렇게 투명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동물들이겠지요. ‘말’이 담겨 이루는 세상, ‘말’이 담아 이루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구름이가 주변으로부터 거울처럼 반영하고 제 몸처럼 여기는 말의 조각들을 통해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파괴력도, 또 그를 넘어설 만큼 강력한 생명력도 있다는 것 을요. 한번 뱉어내기엔 너무도 쉬운 것이 ‘말’이지만, 뱉어낸 말이 상대방에게 끼친 영향력은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 앞에 마주 선 이에게 어떤 말을 전했 나요? 당신의 입술로부터, 상대방의 가슴에 가 닿은 그 말은 그이의 하루에 어떤 모양의 지 문을 남겼을까요?

『안녕, 내 사랑!』은 학대받고 버려진 앵무새 ‘구름이’가 ‘할미’의 사랑으로 자유로워지는 이야 기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으로 호명하는 일, 사랑으로 호명되는 일이 이를 수 있는 기적에 대한 몽클한 서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슴에 품게 되는 가장 커다란 선물은, 바로 내 앞의 당신을, 내 앞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시선일 것입니 다.

차근차근 책 읽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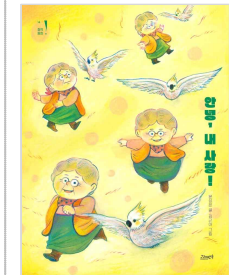
이 독서 지도안은 10차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 읽을 시간과 토론했 시간을 안배하고,
두세 가지 활동 가운데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계		차시	활동내용
읽기 전에	책과 첫인사를 나눠요	1	* 『안녕, 내 사랑!』은 어떤 책일까요? -제목, 작가, 표지 등 기본 정보 살펴보기 -표지를 보고 이야기 만들어 보기
읽으면서	책 속으로 쑹! 들어가요	2	* ‘말’에 별거벗긴 새 -이야기의 내용 파악하기
		3	* 병이 되는 말, 약이 되는 말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4	* 마음을 비추는 거울 -등장인물의 마음 이해하기
		5	* 사랑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호명하는 일 -이야기의 주제 이해하기
		6	* 나의 세계를 이루는 말 -주제에 대한 이해 심화하기
		7	* 안녕, 내 사랑. 아름다운 나의 천사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읽고 나서	책 밖의 세상과 이어져요	8	* 나의 이름 너의 이름 -이야기와 삶을 연결하기
		9	* 안녕! 오늘도, 내일도 안녕! -이야기 속 표현 이해하기
		10	* 오늘도 다정히 네 이름을 부르며 -편지 쓰기



『안녕, 내 사랑!』은 어떤 책일까요?

◎ 책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의 정보를 적어 보세요.



제목:

글 작가:

그림 작가:

출판사:

◎ 표지 그림을 펼쳐 놓고 꼼꼼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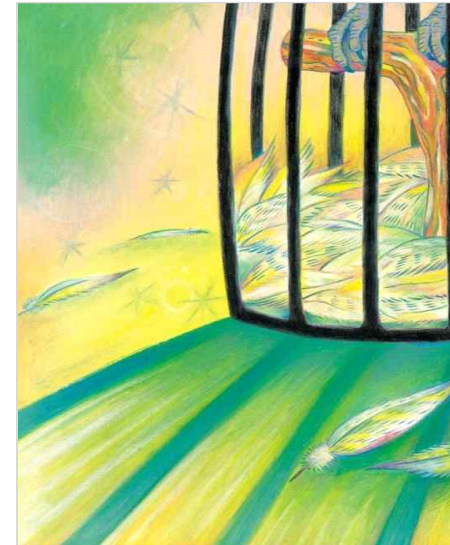
책 속에서 펼쳐질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해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표지 안에 ()이(가) 보여요.

내가 상상하는 책 속 이야기는...

‘말’에 벌거벗긴 새

◎ 사람들의 말을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는 앵무새 ‘구름이’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아이들의 말을 따라 하다 정신을 차려 보니,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몸의 깃털을 자꾸만 뽑아 없앤 것이었지요. 구름이가 자신의 깃털을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름이가 자신의 깃털을 뽑아 없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혼자가 된 구름이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 봅시다.



경험을 나눴어요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소재에 다가간다.

병이 되는 말, 약이 되는 말

◎ 『안녕, 내 사랑!』은 가족들이 쏟아내는 아픈 말들에 상처받고, ‘할미’가 속삭여 주는 사랑의 말들에 치유받는 구름이의 모습을 통해 ‘말’과 그 안에 담긴 태도가 가진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지난 기억을 짚어보며 나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과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준 말을 적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

나에게 가장 행복이 되었던 말



다른 이의 마음을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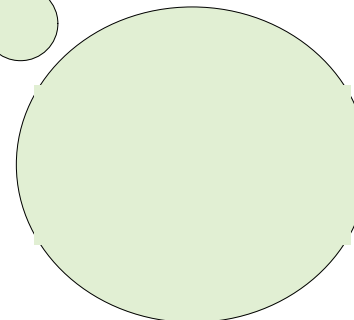
등장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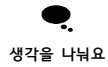
마음을 비추는 거울

◎ 이야기에 등장하는 엄마와 아이들 가족, 그리고 할미는 구름이를 대하는 태도와 말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름이는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만약 내가 구름이었다면 가족과 할미에게 각각 어떤 대답을 들려주고 싶을지 상상해 적어 봅시다.

“구름이. 참 예쁜 이름이네.”
할머니가 환히 웃었어.
순간 내 마음이 몽글해졌지.

“꺼져! 바보야! 멍청이! 못생겼어!”
엄마는 깜짝 놀라더니 당장 나를 방에
가두었어. 난 외톨이가 된 거야.





생각을 나눠요

활동을 통해 이야기의 주제를 성찰한다.

사랑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호명하는 일

◎ 구름이와 할미는 둘만의 일상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람들과 나누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만약 내가 구름이와 할미의 일상이 담긴 인터넷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어떤 감상이 들까요? 둘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 보세요.



할미와 구름이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 보세요.



생각을 정리해요

경험을 반영하여 이야기의 주제에 다가간다.

나의 세계를 이루는 말

◎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익숙한 말들, 습관처럼 쓰는 단어들을 정리해 봅시다.

내가 자주 쓰는 단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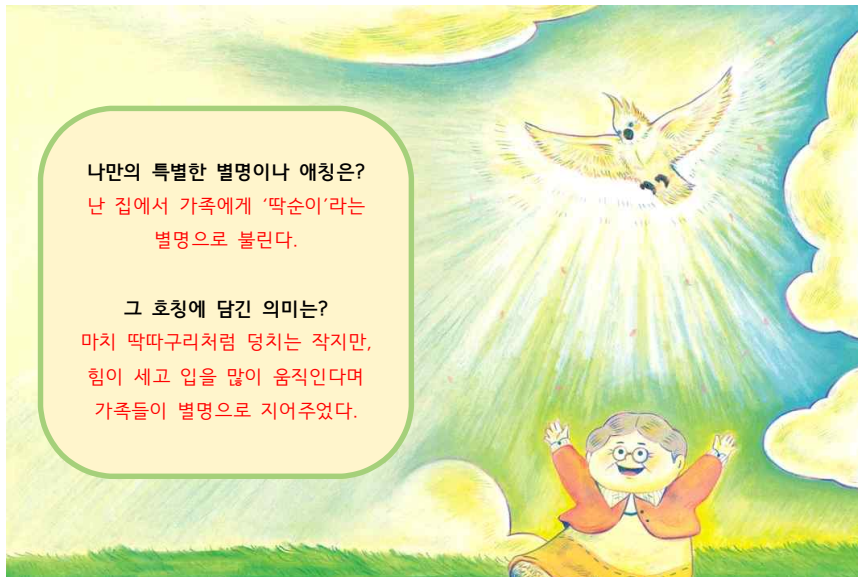
내가 자주 쓰는 문장들

생각을 나눠요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나눈다.

안녕, 내 사랑. 아름다운 나의 천사

◎ 책의 제목에도 반영된 “안녕, 내 사랑. 아름다운 나의 천사.”라는 말은 할미와 구름이가 서로를 부르는 인사말이자 호칭입니다. 이 말처럼 내가 가진 특별한 별명이나 애칭이 있나요? 그 호칭으로 불릴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함께 적어 보세요.



나만의 특별한 별명이나 애칭은?
난 집에서 가족에게 ‘딱순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 호칭에 담긴 의미는?
마치 딱따구리처럼 덩치는 작지만,
힘이 세고 입을 많이 움직인다면
가족들이 별명으로 지어주었다.

주변에서 나를 부르는 특별한 애칭이 마음에 드나요?
그 호칭으로 불릴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처음엔 어딘가 어색하고 싫게 느껴졌었는데 계속 불리다 보니
점점 정이 들기도 하고, 편해졌던 것 같다.

생각을 나눠요

이야기의 주제를 실제 삶에 반영하여 생각해 보는 힘을 기른다.

나의 이름 너의 이름

◎ 다른 이가 붙여준 이름이 아닌, 내가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이름을 지어 보고, 가장 소중한 이에 게 불러주고 싶은 이름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한 이름:
‘선물’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이름에 담긴 의미:
나 스스로를 선물처럼 여기고
아껴주길 바라는 의미이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이름:

이름에 담긴 의미:



필요한 지식을 배워요

단어의 뜻과 쓰임을 배운다.

안녕! 오늘도, 내일도 안녕!

◎ “안녕”이라는 말에는 중의적인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뜻풀이를 찾아 적어 보고 단어의 의미를 활용한 문장을 지어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안녕’이란 단어가 주는 울림에 대해 나눠 봅시다.



“안녕”에 담긴 뜻은?

첫째 : 아무 탈 없이 편안함

둘째 :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말

“안녕”이란 단어에 담긴 뜻을 다양하게 활용해 글을 적어 보세요.



편지를 써요

나의 경험을 돌아켜보고 등장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다.

오늘도 다정히 네 이름을 부르며

◎ 지금까지 학습한 ‘말’에 담긴 의미를 되돌아보며, 이야기 속 구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편지에 담아 봅시다.

TO. 구름이에게.....

